

김명식의 문예론

— 『신생활』의 글을 중심으로 —

전성규*

〈차 례〉

1. 연구사 검토
2. 김명식의 러시아 문학의 수용-이상과 현실, 예술과 노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3. '분노'와 '증오'라는 민중감정과 "창조적 변혁의 의지"로서 문학
- 오스기 사카에(大杉 栄)의 민중예술론과 관련하여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신생활』에 실린 김명식의 글을 중심으로 문예론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김명식은 『신생활』 내에서 신문화운동의 방향성을 '문학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히 신생활 제3호에 실린 「로서아의 산문학」은 『신생활』 안에서 문예물의 번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신생활』이 주창한 "평민문학"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 매우 중요한 텍스트로 역할하였다. 「로서아의 산문학」은 김명식이 1921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동아일보』에 연재한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모태를 두고 있는 글이다. 김명식은 「로서아의 산문학」에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후진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한 이유를 지속적으로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서부터 본격화한다. 「로서아의 산문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800년대 중후반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투르게네프, 고리키 등 민중 현실과 이상을 균형감 있게 매개하는 문학의 등장이 현실의 혁명을 견인하였다고 보았다.

김명식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종합적 탐구와 이에 기반한 러시아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일본 문학장을 경유하여 생성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1910년대 중후반에서 192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 문예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민중예술론의 영향이 주목된다. 김명식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며 이들이 분노나 증오와 같은 '생(生)'의 감정을 자유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학술연구교수

롭게 분출할 수 있는 예술기관이자 투쟁기관으로서 문학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는 오스기 사카에(大杉栄)의 민중예술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오스기 사카에는 로맹 롤랑의 『민중극』, 생철학, 아나키즘,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 등을 수용하며 생명주의에 입각한 민중예술론을 정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 문화들의 작품은 큰 영향을 끼치는데, 오스기 사카에가 혁명 이전 러시아 리얼리즘 작가를 읽은 특정한 독법의 영향이 『신생활』에 실린 김명식의 글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 글에서는 김명식의 글의 흐름의 원천을 따라가면 서 『신생활』이 주창한 평민문학의 개념화와 지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김명식, 문예론, 『신생활』, 평민문학,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민중예술론

1. 연구사 검토

이 글에서는 『신생활』에 실린 김명식의 글을 중심으로 그의 문예론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명식은 신생활사의 이사 겸 『신생활』의 주필로 활동하면서 『신생활』을 이끌어간 중심인물이다. 특히 김명식은 『신생활』 내에서 『신생활』이 주창한 신문화 운동의 방향성을 ‘문학운동’과 관련하여 논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생활』의 신문예론의 중심에서 있었다.¹⁾ 『신생활』 제3호에 실린 김명식의 「로서아의 산문학」은 이후 정백의 「노동로서아의 문화시설」(『신생활』 제6호)나 「이상향의 남녀생활」(『신생활』 제8호), 강매가 쓴 「자유비판의 정신」(『신생활』 제9호) 등 『신생활』 내부에서 논의된 민중예술론을 견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중예술론 및 민중문예론의 정초가 놓이면서 현좌견(玄左健)의 「人」, 신일용의 「희생」과 같은 창작소설을 비롯하여 「血痕」, 「意中之人」과 같은 러시아 문학이 번역되어 실리기 시작한다.

그간 『신생활』에서 김명식의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김명식과 『신생활』에 관한 연구로는 김명식의 기초적인 생애사를 밝힌 연구,²⁾ 사회주의 운동사 속에서 김명식의 혁명 노선을 파악하고 맑스주의의 보급 통로와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국내거점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신생활』을 파악한 연구,³⁾ 『신생활』 필화사건과 관련하여 총독부의 검열체

1) 『신생활』에 실린 김명식 글의 목록

제와 언론정책과 갖는 상관성에 대한 연구⁴⁾, 신생활사의 주요필진들이 『신생활』의 발간 뿐 아니라 신석현(新瀉縣) 사건과 같은 동시대 사회 현안에도 적극 개입하며 주변 언론들과 연합하여 전선을 짜는 운동을 벌임으로써 꾸준한 사회적 실천을 하였다는 연구⁵⁾ 등이 있다.

또한 『신생활』의 문예론을 다룬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현은 『『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과 문예의 특성』에서 『신생활』의 문예론을 “사상의 문학, 생활과 이상의 문예화”로 정리하면서 『신생활』의 문예는 인격 개조를 통해 ‘개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현실의 비참함을 묘사하면서 ‘개성’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 세계를 지향했다고 보았

권호	발행일	제목
『신생활』 1	1922.3.15.	創刊辭
『신생활』 1	1922.3.15.	社會葬은何?
『신생활』 2	1922.3.21.	卷頭言-舊時代와 新時代
『신생활』 2	1922.3.21.	文化와 新文化
『신생활』 3	1922.4.1.	露西亞의산文學
『신생활』 5	1922.4.22.	설낭당의頌
『신생활』 5	1922.4.22.	朝鮮青年會聯合會第三回總會를맞치고
『신생활』 6	1922.6.1.	機會主義者와功利主義者
『신생활』 6	1922.6.1.	金益斗의迷妄을論하고-基督敎徒의覺醒을促하노라
『신생활』 6	1922.6.1.	朝鮮女子敎育協會의使命
『신생활』 7	1922.7.5.	戰爭哲學의批判
『신생활』 7	1922.7.5.	十九世紀物質的狀態의變化와政治生活
『신생활』 7	1922.7.5.	孫義庵의長逝를吊하노라
『신생활』 8	1922.7.5.	敎育의原理를論하고七校長의議案을評함
『신생활』 8	1922.7.5.	戰爭哲學의批判
『신생활』 9	1922.9.5.	蘇秦과項羽와石崇
『신생활』 9	1922.9.5.	原始社會의破滅과貴族社會의變遷
『신생활』 10	1922.11.4.	민족주의와 코쓰모포리타니즘(1)

- 2)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4.3과 역사』 5, 제주4.3연구소, 2005;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 39, 2011; 김동윤, 「송산 김명식의 생애와 문학」, 『한국문학논총』 63, 한국문화회, 2013.
- 3)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00;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 『사람』 49, 수천사학회, 2014; 이현주,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 1919~1923」, 일조각, 2003;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 :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2007
- 4)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박현수, 「『신생활』 필화사건 재고」,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 5) 정윤성, 「『신생활』의 역사적 의미 재론-잡지사의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다.⁶⁾ 김경연은 『신생활』의 문화운동과 민중예술은 문학과 정치가 별개가 아닌 문학의 정치, 혹은 정치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도였으며 이것이 곧 『신생활』이 기획한 평민문화 건설의 주요 내용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⁷⁾ 이들은 공히 『신생활』 제3호에 실린 김명식의 「로서아의 산문학」을 다루면서 그의 글이 『신생활』의 특징적인 문예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좌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간 『신생활』의 문예론은 현실에 대한 예술과 문학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과정에서 예술과 사회, 문학과 현실, 예술과 노동의 관계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매개로서 ‘문학’, 이상과 현실의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이 문학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생활』의 문예론을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에 대한 관점이 어떤 지식적 경로와 문제의식을 거쳐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김명식의 「로서아의 산문학」이 『신생활』의 문예론의 방향성을 노정하는 중요한 글임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가운데에서도 김명식이 러시아 문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나, 관심을 갖게 된 경로, 구체적으로 그가 러시아의 어떠한 문학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는지 충분히 밝혀진 바는 없다.

김명식의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에서 농노해방의 물결을 촉진한 자유주의 담론의 성장, 현실과 예술, 예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러시아 지식인들의 고찰, 혁명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담론들 속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 발흥된 민중예술론의 영향을 경유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⁸⁾

6) 김중현, 「『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과 문예의 특성」, 『인문논총』 3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7) 김경연, 「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신생활』의 사회주의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의 기획」, 『한국문학논총』 71, 한국문화회, 2015.

8) 권보드래는 1920년대 이후 왕성했던 러시아 문학의 소개에 일본어 문학장의 상황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러시아 작가들의 문학이 조선에 직접 번역된 기록이 적은 상황에서 조선인 지식인과 독서 대중에게 러시아 작가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일본에서 나온 전집, 선집류, 독립적 간행물 등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권보드래, 「과제예프와 조선의 동지들 : 소비에트 모델과 조선의 사회주의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80, 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21~22쪽.

김명식의 『로서아의 산문학』은 사실 그 이전 1921년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된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그 모태를 두고 있는 글이다.⁹⁾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는 레닌의 생애에서부터 혁명가로서 활약, 혁명 노선에 대해 풍부히 다루고 있는 글이지만, 이 글에서 김명식이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産하였는가 러시아의 역사가 레닌을 産하였는가”를 여러 번 자문하는 만큼 레닌주의로 수렴되지 않는,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가능했던 다층적이고 복잡한 혁명 사상과 근대 지식장 및 문학장의 성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로서아의 산문학』에서도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고리키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김명식은 특히 러시아 혁명 이전 1800년대 후반 부흥했던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 김명식의 러시아 문학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경제로 보나 문화로 보나 후진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탐색하면서 러시아의 고대 농민부락체의 성격에 대한 탐구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러 시행착오 끝에 결국 180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형성이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이끈 주된 요인이었다는 결론을 갖게 된다. 특히 리얼리즘 문학의 형성이 러시아의 근대 문학장을 개시하고 새로운 문학의 언어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러시아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김명식은 ‘민중문학’을 정립함으로써 평민문화를 주창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민중문학은 단순히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감’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적 에너지를 격발하거나 최대한으로 증폭시켜 이들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추구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9) 최근 김명식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가 어떠한 저작들을 바탕으로 쓰였는지에 관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 김현주·카케모토 츠요시, 「초창기 사회주의 지식인의 러시아혁명 인식 - 김명식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921)를 중심으로」, 『동박학지』 20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이 글에서는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가 야마카와 히토시(山川 均)나 우치야마 쇼조(内山省三) 등 레닌주의자와 반 레닌주의자들의 글을 교차 배치하는 글쓰기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며 배치의 의도를 제국주의론과 식민지 현실과 관련지어 면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지식인의 역할은 기존처럼 민중을 교화하거나 포섭하는 데에 있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조력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문학이 민중감정의 ‘분노’와 ‘증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주목은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를 거쳐 김명식이나 신일용 등 『신생활』의 필진들에게 옮겨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투르게네프와 고리키 등이 민중현실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묘출하면서 변혁에 대한 의지와 희망의 섬광을 균형감있게 그리고 있다는 점을 고평한다.

『신생활』의 민중문예론에서는 예술과 생활의 본연적 관계와 이를 매개하는 민중의 본능과 반역의 의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아나키즘의 영향이 농후하게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특히 민중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주목한 김명식의 민중문예론은 “생철학과 로맹 톨랑의 민중예술론, 아나키즘 사상을 접합하여 특유의 생명주의 사상을 주창”한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오스기 사카에는 새로운 사회의 주체인 민중을 생명의 발현과 확충, 창조성 등으로 조명하고, 민중의 본능을 억압하는 일체의 것이 반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민중의 감정과 사상, 생명력을 표출할 수 있는 투쟁기관이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예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¹¹⁾

그간 『신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크로포트킨, 슈티르너, 라파르그와 윌리엄 모리스, 마르크스 등의 영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¹²⁾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¹³⁾ 본고에서는 『신생활』에 실린 김명식의 문예론이 『신생활』

10) 1920년대 초 문학예술에서 아나키즘의 계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카프 이전의 미분화된 사회주의 예술의 이념적 기반을 아나키즘/마르크스주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적 경향 속에서 논의한 연구로 최병구, 「사회주의 조직운동과 문학, 소설과 비평의 사이-1927년 카프 1차 방향전환기 재독(再讀)」, 『국제어문』 60, 국제어문학회, 2014; 이형진, 『1920년대 신경향과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에 관한 논고』, 『석당논총』 7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11) 이형진, 앞의 글, 186쪽.

12)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 88쪽.

13) 예를 들어 박양신은 다이쇼 시기 일본의 민중예술론이 조선의 민중예술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혼마 히사오(本間久雄)과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후 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의 전개와 관련하여 『개벽』, 『신생활』 등을

의 평민문학의 방향성을 노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규명하고 그의 러시아 문학, 혁명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을 경유하여 형성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2. 김명식의 러시아 문학의 수용 - 이상과 현실, 예술과 노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명식에 의해 쓰인 『로시아(露西亞)의 산 문학(文學)』은 러시아 혁명 이전 문학들을 개괄한 러시아 문학론이다. 이 글에서는 고골,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고리키 등 러시아의 문호들에 의해 쓰인 대표작품들을 중심으로 민중문학의 발흥과 혁명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산문학』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명식이 『동아일보』에 1921년 6월 3일부터 게재한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의 서술 초반부에서는(특히 6월 연재분) 훗날 『러시아의 산문학』의 모태가 되는 러시아 문학론이 집중적으로 연재가 된다.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서 러시아 문학론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는 카트리나 여제 때 자유주의 사상의 유입과 농노제 해방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대된 자유주의 정신과 비평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의 산문학』에 이르러서는 투르게네프에서부터 도스토예프스키까지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이 ‘평민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검토된다.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연재된다. 주로 격일로 연재되었지만 매일 연재되는 시점도 중간중간 있어 이 글이 매우 정력적으로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레닌의 생애

폭넓게 검토하지만 『신생활』의 민중예술론을 평가(여기에서도 김명식의 『로시아의 산문학』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하는 데에서 오스기 사카에와의 영향보다는 혁명 이전 러시아 문학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예술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박양신, 『다이쇼 시기 일본·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 『한림일본학』 22, 일문학연구소, 2013.

사와 가족관계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혁명가로서 레닌의 사상적 지평과 실천, 혁명 노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들을 전유하여 촘촘히 논지를 구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 혁명은 조선에 사회주의가 수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맑스주의와 볼셰비즘이 동시다발적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김명식은 레닌을 초점화하면서도 러시아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기사를 신게 된다.¹⁴⁾

러시아 혁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분출되었던 시기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가 쓰였던 만큼 김명식은 레닌의 혁명적 노선을 고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레닌주의로 수렴되지 않은 러시아의 초기 사회주의의 다양한 상상력들과 자유주의 담론, 민중문학에 두루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명식은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전제정치, 압제정치, 관료정치를 전복한 운동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이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적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명식은 10월 혁명 이후에 그려진 세계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에서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한 탐색에 더욱 착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그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의 공식화된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수수께끼로 생각했다. “막스의 사상도 러시아로 입래하였고, 자본주의도 또한 노국에 입래”하였지만 “보다 진보한 다른 나라에서는 인류가 이상(理想)하는 공산경제 위원정치를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보다 후진인 러시아가 “모든 곤란과 장애를 배척하고 위연(威然)히 전인류의 최선두에 입(立)하여 그 이상향으로 돌진”¹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다.¹⁶⁾

14)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조선인들은 세계혁명이라는 구상 속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재검토하며 식민지 조선의 민족 해방 운동의 방향성을 노정하였다. 최은혜, 『민족과 혁명 :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77,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에서는 사회주의 수용의 측면을 “멘탈리티의 형성원리”로 바라보면서 민족자결주의, 3.1운동과의 흐름 속에서 러시아혁명 및 볼셰비즘,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조선내 인식을 변모해간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15) 김명식, 『러시아의 산 문학』, 『신생활』 3, 1922.4.1.

16) 앞서 인용한 김현주·카케모토 츠요시의 글에서는 ‘러시아의 기형성’에 대한 평가는 우치야마 쇼조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평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러시아의 기형성’에 대한 김명식의 깊은 관심에는 19세기 러시아의 정치 상황과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의 유사함에 대한 인식이 기저해

초기에는 이에 대한 탐색으로 미하일롭스키 등이 착목한 슬랍민족의 원시적 공동체성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 6월 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서는 니콜라이 미하일롭스키의 주장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미하일롭스키는 “노국의 농민간에 잔재한 원시적 토지공유의 제도와 이에 따르는 공산주의의 본능과 습관이 슬랍민족에게 특유한 것이라고 하여 그 존귀한 제도와 본능을 애호하고 자본주의 발달의 계단은 통과하지 아니하고 곧 완전한 공산주의가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¹⁷⁾ 이 글에서는 “밀”이나 “도블”과 같은 슬라브 민족의 오래된 농민부락체가 “순연한 자치를 행하고 개인 간 하등의 차별은 인정치 아니하는 전혀 평등의 관념에 기초하여 조직된 것”으로 소개되며 “자본주의에 대한 무산계급의 쟁투에 의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회적 이상”으로 평가된다.¹⁸⁾

러시아가 유럽의 산업화의 길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밀’은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과 저발전의 상징이었지만, 미하일롭스키 등 러시아 농민생활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밀’을 주목한 학자들은 서구사회에서 만연한 사유제나 자본주의의 병폐를 피하면서 러시아가 서구식 사회발전 코스와 다른 혁명 노선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⁹⁾ 김명식은 1921년 6월 13일 연재분에서 밀과 도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자신이 1920년에 「지방자치의 러시아」라는 글도 신문에 실었다고 적고 있다.²⁰⁾ 『동아일보』에는 1920년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일기자라는 필명으로 「지방자치의 개념」이 연재된다. 15회 연재분(1920년 6월 10일)이 「로시아 자치의 추세」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슬랍 민족의 ‘밀 제도’가 소개

있다고 보았다. 니콜라스 1세가 관료정치로 전환하여,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의 자유국가 건설운동을 진압하고 교육과 언론을 억압한 상황이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유비되며 후진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김현주·카케모토 츠요시, 앞의 글, 133쪽.

17) 김명식, 〈노국혁명운동의 유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동아일보』, 1921.6.9.

18) 김명식, 〈노국혁명운동의 유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동아일보』, 1921.6.13.

19) 김학준, 「19세기 제정러시아 사상가들의 혁명이론에 대한 고찰」, 『국방연구』19,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1976, 425쪽.

20) 1921년 6월 13일 기사에서는 “此 밀制度를 參考하려면 昨年本紙에 기재한 地方自治의 露西亞章을 參照하시오”라고 적혀있다.

된다. 비록 김명식이 회고하는 제목과는 갖지 않지만 1년 전 『동아일보』에 연재된 글이고 러시아의 고대 자치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지방자치의 개념」 역시 김명식의 글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여기에서 김명식은 러시아의 고유한 향촌 자치와 조합적 자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견고한 정치단위가 결국 차르의 정치를 전복하였으며 레닌의 포부 또한 “밀제도로 조직된 통일적 조합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²¹⁾

하지만 원시공동체성에 대한 탐색만으로는 러시아 혁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김명식이 보기에 러시아 혁명은 공산경제의 실현이기도 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근대성을 극복한 「신문화」의 출현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와 사회의 제도, 종교의 양식, 경제의 조직에 있어서 구습의 뿌리가 뽑혀 나가고 어떠한 역사를 갖지 않은 새로운 뿌리가 러시아에서 자생하게 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다른 접근이 요청되었다.

김명식은 『신생활』 제2호에 실린 글 「구문화와 신문화」에서 ‘문화’라는 것이 인간생활에서 갖는 가치와 그것의 특수한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새와 물고기가 공중과 물을 떠나 생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도 문화를 떠나서는 생존도 생활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화가 동물의 환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문화를 “창작도 하고 변형도 하”면서 생활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인공(人工)을 가함”으로서 “생활의 안태를 도모하는 일”이 인간과 문화의 관계라고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현대문화의 원천이며 실체이고 현대인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는 동시에 그 생활의 전부를 총이 술(率)한다.” 문화가 비록 변천하고 유동한다고는 하지만 “그 변천과 유동이 오직 일정한 윤곽 내에서 행하였을 뿐 새롭게 윤곽을 만들고 방향에 변화를 주어 신문화를 건설치 못하였다”는 점이 자본주의 현대문화의 한계로 지적된다. “신문화는 신(新)과 구(舊)의 자의(字意)가 같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 윤곽도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문화의 윤곽을 파괴하고

21) 일기자, <노서아자치의 추세>, 「지방자치의 개념」(15), 『동아일보』, 1920.6.10.

신(新)히 윤곽을 작(作)하는 것이 곧 신문화이다.”²²⁾ 러시아 혁명이 신문화 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본주의 현대문화의 윤곽을 넓히거나 변형한 것이 아닌 그것과 아예 다른 새로운 윤곽을 만들어 낸 문화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²³⁾

자본주의의 구문화가 “소수의 문화” “계급의 문화”라면 신문화는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전체문화이며 대중문화이고 노동문화”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노동문화, 민중문화로서 신문화의 탄생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김명식은 러시아의 문학과 예술의 영역이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견인하였으며 결국에는 혁명을 통해 구조적 변혁을 야기하였다고 보았다. 『로시아의 산 문학』에서 김명식은 “로시아가 과거의 문화권 내에서 뒤졌던 위치를 초탈하고 신문화권 내에서 급선봉이 되어 표현이 앞서게 된” “미적(謎의-수수께끼적) 사실을 산출한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의 큰 원인을 이룬 것은 로시아의 문학이라고 한”다고 말한다.²⁴⁾ 이것은 곧 혁명이란 것이 언어에 의해 창조된 세계와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의 정합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다른 아닌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로시아의 산문학』은 새로운 문학을 견인한 러시아의 문학 작가로 대표적으로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고리키 등을 언급한다. 이들 작품은 “민중의 고통”과 “강자의 횡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자 한 문학이며 “인류의 이상(理想)이 무엇이면 그 이상을 그대로 토출(吐出)하고자”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들 중 고리키는 “미온적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키 어려울만한 열렬한 정신으로써 오저계급(奧底階級)을 위하여 기염을 토한” “민중을 위하여 싸운” 작가(『로시아의 산문학』)이자 “혁명사상의

22) 김명식, 『구문화와 신문화』, 『신생활』 2, 1922.3.21.

23) 김현주는 1920년대 초 사회주의가 사회비평 장르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며 1920년대 전반기에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은 그때까지 부르주아 계몽주의적 비평이 사회적 현실에서 발견하고 이루려고 한 목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전제로 삼은 가정들, 현실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도구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증거들의 틀을 교정하고 수정하고자 했다고 파악한 바 있다. 김현주,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사회주의는 사회비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4) 김명식, 『로시아의 산 문학』, 『신생활』 3, 1922.4.1.

선전자”이면서 “사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조화에 성공한 자”로서 평가된다. 신일용은 『민중문화 고리키의 면영』에서 고리키의 글을 읽으면서 “인습의 철망”을 벗었고 “구도덕의 질곡에서 해탈”했으며 고리키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감정의 정화”될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감격이 넘치도록 흐르고 두 눈에는 희망의 섬광이 번쩍”인다고 쓰고 있다.²⁵⁾ 혁명 이전 러시아 작가의 작품은 문학을 경유하여 현실의 한계와 이상 사이에 놓인 다양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경험하게 하면서 새로운 문화라고 부를만한 형상을 띠는 것으로 직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술은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는 개념을 실현하고 있으며 인식 또는 도덕이 달성해야 할 것을 직관적(감성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낭만주의 이후의 철학자들은 예술이야말로 본래의 ‘지(知)’이며 예술에서 이미 이루어진 ‘종합’을 바탕으로 과학과 도덕이 파생한다고 생각했다.²⁶⁾ 과학적 사유는 인과론적 필연성에 따라 현상적 경험세계를 인식하지만 그것은 주어진 현실세계를 넘어선 물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인간의 도덕적 사유는 자유의지의 원리에 따라 이 세계의 초월적 목적과 의미를 요청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현실세계 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예술은 이러한 사유의 분열을 ‘매개’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²⁷⁾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는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産하였는가 러시아의 역사가 레닌을 産하였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한다.²⁸⁾ 김명식은 이 질문에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김명식은 이 글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글에서도 꾸준히, 러시아 혁명은 레닌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등장으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혁명 이전 30여년 간의 지속적인 사상운동과 문학운동의 결과물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명식은 고리키와 같은 민중문학의 창시자들이 현실의 고통(사실)과 이상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문학적 체험을 사회전반으로 확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25) 신일용, 『민중문화 고리키의 면영』, 『신생활』 10, 1922.11.4.

26)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티크』, 한길사, 2005, 74~75쪽.

27)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166~167쪽.

28) 김명식, <노국혁명운동의 유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동아일보』, 1921.6.3.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다수의 주체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혁명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서는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고리끼 등의 작가 등장 이전에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언어모델을 제공한 자로 비사리온 벨린스키(Vissarion Grigorievich Belinskii)와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Nikolai Chernyshevskiy)를 언급한다.

비사리온 벨린스키는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노국의 씹와 情의 백과전서”라 칭하는 페린스키와 같은 대비평가가 나와 당시의 문학자의 眼을 開하고 광히 인도주의의 입지에서 정치, 사회 등 현실의 제문제와 문학과의 접촉을 促하고 “예술 때문에 예술주의”를 배척하고 “인생 때문에 예술주의”를 唱하였도다. 그중에는 농부의 가련한 생활을 묘사한 것, 귀족의 횡포를 풍랄한 것, 잔학을 받는 빈민의 생활을 묘출한 것. 여하한 방면으로든지 문학은 그 시대의 반영이 되는 동시에 시대를 動하는 가장 큰 힘이 있는지라. 창작에 觸한 노서아인민은 사회적 자각을 促하였나니 피등은 농노제로 시작하여 幾多의 악제도, 악습관의 존재가 여하히 인민을 고통케 하였음이 多하였는지를 통절히 覺하였 으며...29)

근대 러시아의 지식장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비사리온 벨린스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1834년에 『문학적 공상』라는 비평에서 ‘우리에게 문학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며 등단하였다. 벨린스키는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에 의해 시작된 근대화 이후의 역사만이 본원적인 러시아의 역사에 속하며 문학 역시 서구에서 도입된 문학만을 진정한 문학으로 간주했다.³⁰⁾ “노국의 씹와

29) 김명식, <노국혁명운동의 유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동아일보』, 1921.6.22.

30) 최진석, 『근대 러시아 지식장과 역사철학 논쟁 : 서구주의 비평가의 내면적 초상으로부터』, 『탈경계인문학』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6, 41쪽.

情의 백과전서”라는 김명식의 언급은 서구적인 문학 개념의 번역을 통해 러시아 근대 문학의 정초를 닦고자 했던 벨린스키의 노력을 평가한 것이었다. 김명식이 “예술 때문에 예술주의를 배척하고 인생 때문에 예술주의를 주창 하였”다고 평가한 것처럼 벨린스키는 예술에서 개인성과 사회성에 대한 요구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서로를 견인하고 반발하는 변증법의 역동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벨린스키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현실에 투사하는 인간으로서 개인을 정립시키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정립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문학의 사회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또한 김명식은 벨린스키 이후 러시아 혁명을 본격적으로 견인한 인텔리겐차의 성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여기에서 체르니셰프스키,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이 호명된다.

농노해방의 전후는 노서아 사상계, 문예계가 가장 활기를 띤 시대라. 모스크바에서는 각종 자유주의 신문잡지가 발행되었으며 젤뉴세후스키(체르니셰프스키)는 그 책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소설 중에 미래사회의 조직방법을 보여 사회주의적 인생관을 숭하고 줄게네후(뚜르게네프)는 귀족의 家, 그 前夜, 아버지와 아들, 등 명편을 썼으며 그 외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 일대 문호가 배출되어 명론과 탁설을 제창하였나니 이들 작품은 인도적, 민주적 견지로부터 러시아의 정치, 사회 등을 관찰한 바 심각한 문명비평이라. 이와 동시에 박물, 밀, 콘트 등 현실적 인생관에 입각한 영불의 유물주의자의 학설은 다대한 감격으로 다수의 인중이 애독하였나니 그 경향은 자연과학을 중히하고 종교의 미신과 우상을 배척하며 일절의 인습적 제도를 부인하는 지식계급의 발생이 되었도다. 이른바 허무주의도 출래한지라. 허무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되는 동시에 가공할 혁명운동을 개시하였도다.³¹⁾

김명식은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31) 김명식, <노국혁명운동의 유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동아일보』, 1921.6.24.

아들』 등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지성사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보았다.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주듯, 이 시기는 새로운 지식 계급이 혁명 주체로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이전 세대의 귀족 출신의 인텔리겐차와는 구별되게, 허무주의를 보다 과격한 사상으로 전용하면서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비판하고 경제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혁명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김명식의 말대로 새로운 지식계급의 출현이 “허무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되는 동시에 가공할 혁명운동”을 개시하게 된 것이었다.

『신생활』의 필진들은 ‘지식계급’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을 자연화하는 언론, 교육, 정치 기관 등의 역할을 비판하였다. 사상가, 작가, 혁명가가 구분되지 않는 종합적인 인격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글을 썼다는 점에서 인텔리겐차와 유사한 지점이 존재한다. 『신생활』의 필진들은 예술과 노동이 합일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오’와 ‘폭로’, ‘반항’, ‘변혁’이라는 앞선 단계를 충분히 제대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생활』 제9호(1922.9.5.)에 실린 강매(姜邁)의 글 「자유비판의 정신」이란 글이 주목된다.

생활은 종합이요, 예술도, 또한 통일이라. 종합과 통일이 무(無)한 생활과 예술에는, 힘 그것이 무(無)하도다.

생활은 각각의 찰나에 추이(推移)하는지라, 연(然)이나, 그것은, 다만 추이하여 갈뿐만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라, 추이하여가는 것이, 곧 성장하여가는 것이며 심원하여가는 것이라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의 그것이 성장하며 심원하여가는 데는 비평의 정신과 창조의 력이 잠시 동안이라도, 서로 떠나지 못할 힘이 되어 생활의 내부에서 발동치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비평의 정신과 창조의 력이 포화혼용(飽和渾融)되는 곳에, 비로소 생활의, 새로운 성장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평에 기초를, 둔 창조가 처음으로 생활을 심(深)케 하며 또 강(強)케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활이 신(新)히 성장되며 신(新)히 심(深)케 된 곳에 생활의 통일된 형상(形相)을 인(認)할지로다.

...

예술은, 이 생활의 성장, 창조, 내지 통일의 표현에 한 것이다. 구(舊)에서(전부) 새로운(전부) 것에, 옮겨가려는 표현이다. 차라리 적절히 언(言)하자면, 새로운 자기의 생활의(전부) 통일된, 새로운 자기의(전부)를 표현하는 곳에, 예술의 기쁨이 있으며 광채가 있으며, 힘이 있는지라. 이 새로운 자기의 표현이 ○한 예술, ○○ 새로이 창조되고 통일된 자기의 생활의 표현이 무(無)한 예술은, 우선 언어 그것에 대하여 모순이 될지라도. 예술은 항상 새로운 생활의 통일을 여(興)하며, 또 새로운 생활의 창조의 기쁨을 여(興)하는지라.³²⁾

여기서 비평정신이란 자신에 대해, 자기의 생활에 대해 그것을 “변호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폭로하는 듯한 정신의 긴장과 용렬”에서부터 시작한다. “비평이 무(無)한 생활은 신(信)도 무(無)하고 순(順)도 무(無)하며 반항도 무(無)한 생활”이다. “비평이 무(無)한 생활”은 자유가 무(無)한 생활이며 유인(幽囚)된 생활이다. 비평정신이 투영된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은 새로운 생활로 옮겨 갈 수 있다. 예술과 삶의 일치에 대한 주장이 단순한 위안이나 쾌락의 향유가 되지 않으려면 예술은 우선적으로 현실에 대한 날선 언어들을 제 공해야 하며 민중의 투쟁의 몸짓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2. ‘분노’와 ‘증오’라는 민중 감정과 “창조적 변혁의 의지”로서 문학 -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과 관련하여

『신생활』은 “자유사상의 고취”, “평민문화의 제창”, “신생활의 제창”을 목적으로 삼았다. 자유사상의 고취가 전제되어야 평민문화가 제창될 수 있고 구문화와 근본적인 단절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 생활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의 구호는 상호보완적이고 단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32) 강매, 『자유비판의 정신』, 『신생활』 9, 1922.9.5.

있다. 하지만 이들 중의 가장 핵심은 단연코 “평민문화의 제창”이었다.

신생활은 신생활이라. 대중의 동무로다. 불합(不合)한 구생활을 배척하나니 따라서 자본의 탐람(貪婪)을 인습의 무리(無理)를 위압의 폭력을 배척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대중의 의사를 체(體)하여 대중의 배척하는 바를 신생활도 배척하나니 그럼으로 신생활이며 그럼으로 대중의 동무로다 자유사상을 고취하는지라 이것이 그것이며 평민문화를 제창하는지라 이것이 그것이며 신생활을 제창하는지라 이것이 곧 그것이로다. … 대중이 흥(興)하라 신생활도 흥할지오 대중아 쇠(衰)하라 신생활도 쇠할지라 대중이 쇠하고 흥함을 따라 신생활도 쇠하고 흥할지니 신생활이여 너는 오죽 대중의 동무가 되야 (삭제)뿐이로다.³³⁾

위의 창간사에서는 ‘대중’이 『신생활』의 언론 활동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됨을 말하고 있다. 특히 “대중이 흥해야 신생활도 흥하고 대중이 쇠하면 신생활도 쇠한다”는 말은 대중과 신생활 집단이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함으로써 『신생활』이 단순히 대중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넘어, 대중이 중심이 된 사상과 문화를 창안해 내는 것에 담론적 실천의 본질적 의미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신생활』의 사상과 문학, 예술에 대한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대중주의, 민중주의는 이전 시대의 계몽주의나 부르주아 문예 미학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중 삶의 조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종합적인 이해, 현실적 필요에서 주창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활』에 실린 글들에는 스스로가 역사의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 당당함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다.

『신생활』의 글들은 아주 복잡한 참고문헌들의 그물망으로 짜여있다. 글쓴이들은 크로포트킨, 바쿠닌, 플레이하노프 등 러시아의 아나키스트나 초기사회주의자들의 글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의 저작들, 고골에서부터 고리키까지의 혁명 이전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들, 일본의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

33) 김명식, 「창간사」, 『신생활』 1, 1922.3.15.

카에의 글이나, 가와카미 하지메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학자의 글, 러시아와 영미권에서 발간되었던 유토피아니즘 소설들을 읽으며 이 언어들을 조각내어 지금 여기와 부단히 접속시켰다. 이런 조각보같은 글쓰기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념이나 사상도 한 자리에 놓이며 의미가 새로워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글쓰기의 유연함은 이들이 일정한 이념이나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식의 실리적인 이용들 기저에는 지금이 ‘변화의 때’라는 매우 강한 신념이 깔려 있었다. 『신생활』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시대의 몰락”과 “신생활의 시작”에 대한 강한 믿음은 “극하면 변하는 것은 사물의 원리”라든가 “덕(德)의 유행(流行)함은 우(郵)를 치(置)하여 명(命)을 전(傳)하는 것보다 일층 속(速)한 것”이라고 하는³⁴⁾ 혁명의 때를 민중의 삶의 형편과 민중 감정의 동요의 정도로 판단하는 고전의 논리와도 맞닿아 있었다.

‘孔子曰：德之流行，速於置郵而傳命(덕이 유행하는 것은 파발마로 명(命)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은 『맹자』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 상(上)」에 나오는 구절로, 공자가 제나라에 오랜 학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기다리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백성이 왕자(王者)의 출현을 갈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勢)와 시(時) 또한 왕도(王道)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보며 한 말이다. 특히 『신생활』 안에서는 『맹자』가 자주 인용되는데 이는 『맹자』가 민심(民心)을 따르는 것이 곧 천명(天命)을 따르는 것임을 통치의 원리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신생활』의 지식인들은 민중을 계몽의 대상이나 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 길을 선택하는 판단력을 가진 주체로서 생각하였다. 김명식에게 있어 이러한 경향성은 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 『학지광』에 실린 「안거연래」³⁵⁾에서는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굳은 신앙(信仰)은 지자(知者)나 현자(賢者)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34) 김명식, 「구시대와 신시대」, 『신생활』 2, 1922.3.21.

35) 김명식, 「안거연래(雁去鶯來)」, 『학지광』 13, 1917.7.19.

이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에 있다함과 같이 우리의 뜨거운 정성도 인격자(人格者)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한 반드시 더운 감정(感情)을 가진 사람에게 있으리라고 믿음으로써니라.”라고 하여 민중계층이 갖고 있는 강한 힘(굳은 신앙과 더운 감정)에 주목한 바 있다. 이 강한 힘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성질을 두드러지게 띠고 있어 인격자의 이성애에 대한 동경과는 대비된다. 김명식은 이 글에서 지식계급을 완전무결한 인격 숭상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여 스스로 사회 안에서 고립을 자초한 존재로 평가한다. 이와 대비되는 민중은 언제나 현실을 살고 있고 거기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곤궁한 현실 속에서 “선한 일이나 선치 못한 일을 불구하고 오직 폭발약이 터지는 듯하는 것과 같이 원한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개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뜨거운 감정이 어떤 굳은 신앙에 기반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plugged와 인내도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중을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서 탐색하고 있다.

민중을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지식인 계급의 입장은 1920년대 초반 국내외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민중예술론과의 관련 속에서 더욱 강화되어 간다. 『개벽』에는 1922년 8월부터 3회에 걸쳐 김억이 번역한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의 일부가 소개된다.

평민은 엄밀히 말하면 미(美)같은 것은 없어도 삽니다. 진실(眞實)만은 없어서는 못삽니다. 또 없이 산다 하여도 그것은 아니됩니다. 우리는 평민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존경하며 숭배하기를 결코 평민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주의에 정신을 잃은 관리들의 평민을 만들기에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민이 모를 것이면 결코 인정치 아니하도록 감동하지 않는 것이면 결코 찬미치 아니하도록 평민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 평민은 그 속에 나오는 모든 위대와 진리의 원천을 조금도 허물내지 않고 보존하여 둡니다. 나는 이러한 평민의 장래에 대하여는 안심하고 있습니다.³⁶⁾

김억이 『개벽』에 연재한 「민중예술론」은 오스기 사카에가 로맹롤랑의 『민중극』을 『민중예술론』이란 제목으로 번역한 일역본을 중역한 것이다.³⁷⁾ 평민은 “진실만은 없어서는 못 살”기 때문에 ‘나’는 “평민의 장래에 대해서 안심”한다. 평민과 지식인 및 예술가의 관계는 평민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민이 감동하는 것을 지식인 및 예술가 역시 감동하고 평민이 모르는 것은 지식인 및 예술가 역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과 앓과 감정을 공유하고 일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김명식의 민중론에서도 김억의 민중예술론에서도 민중을 진리의 주체로 여기는 믿음이 기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로맹 롤랑의 『민중극』은 프랑스의 평민극을 대상으로 쓰였다.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고전극작가 몰리에르(Molière), 라신(Jean Baptiste Racine), 코르네유(Pierre Corneille) 등의 작품들이 민중극의 관점에서 분석된다. 오스기 사카에는 이를 『민중예술론』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명주의와 아나키즘 사상을 접합하여 투쟁적으로 각색한다. 그는 민중예술을 “구사회에 대한 신흥계급-민중-의 ‘전투의 기관’”³⁸⁾으로 의미화하면서, 이를 러시아 문학과도 적극적으로 관련지어 자신만의 민중예술론을 전개하였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예술』에서 오스기 사카에는 ‘개인’의 권위를 부르짖는 문예는 ‘무익’한 것이며 ‘중요’와 ‘반항’에 의한 ‘생의 확충’ 속에서만 ‘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⁹⁾ 또한 『민중예술의 기교』에서 “5년전 2년간의 옥중 생활 동안 러시아 문학을 접하면서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투르게네프, 고리키의 평민적 태도를 비교 관찰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평민의 운수와 인내를 그렸다면 고리키는 평민의 방자(放恣)와 반항(反抗)을 인생의 진리로 여김으

36) 로맹 롤랑, 김억 역, 『민중예술론』, 『개벽』 28, 1922.10.1.

37) 박양신, 『다이쇼 시기 일본·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 『한림일본학』 22, 2013, 48쪽. 박양신에 따르면 김억의 번역과 일역본을 대조해보면 문체를 ‘습니다’체로 바꾸었을 뿐 일역본에서 사용된 한자어를 대부분 그대로 옮기고 있어 이 글은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 일역본의 독자적 번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8) 박양신, 앞의 글, 41쪽.

39) 大杉栄 『新しき世界の為の新しき芸術』, 正義を求めぬ心 : 大杉栄論集, アルス, 1921, 300쪽.

로써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평민적 태도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계속해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온순의 덕을 존경하지만 노예적 처지에 있을 때 인욕(忍辱)은 오히려 부덕(不德)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고리끼의 주인공의 방자(放恣)와 반항에 강하게 동감하였다.”고 말한다.⁴⁰⁾ 러시아 리얼리즘 작가 중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투르게네프와 고리끼로 논의의 대상을 초점화하고 이들을 민중예술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평가하는 오스기 사카에의 언어들은 『신생활』의 주요 필진들에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명식은 투르게네프나 고리끼의 작품이 사회문제를 그려내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할만한 지점이 바로 “괴로운 인부(人夫)”들에게 “절망과 자포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용기와 힘을 고취”하였다는 데에, 민중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끝까지 싸워 구하는 마음을 먹게 하였다는 것에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의 문학이 “연(軟)하고 약(弱)한 것, 미(美)와 교(巧)”에 치중했었다면, 이들의 문학은 “강(強)하고 격(激)한 것이고 의(義)와 용(勇), 투(鬪)와 노(怒)를 발케 하며” 민중의 감정을 주로 하고 “인생의 실생활을 그리며 강자에 대한 후매(詬罵)”를 주로 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평한다. 김명식은 민중의 감정을 한계지우거나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뜨거운 감정을 최고조로 격발시키는 일이 문학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다.

『신생활』 안에서는 혁명기 러시아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비롯 여러 문예물들이 번역된다. 그중 아르치바세프가 쓴 『혈흔』과 오스기 사카에가 쓴 『쇄공장』은 민중 감정의 다양한 결들 속에서 반역적 의지와 생명일치에 대한 욕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신생활』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신백우가 번역한, 러시아 문학가 미하일 페트로비치 아르치바세프(Mikhail Petrovich Artsybashev)의 소설 『혈흔(血痕)』이 실린다. 아르치바세프의 작품은 1905년에 나온 것으로 러시아 1차 혁명의 상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군중의 감정에 대

40) 大杉栄 『民衆藝術の技巧』, 『正義を求めぬ心 : 大杉栄論集』, アルス, 1921, 329쪽.

한 묘사이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지역의 패전 소식을 들으며 군중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만 곧 이를 강한 저항심으로 전이시킨다.

“무슨 말이요, 그것이. 응 그게 무슨 소리여…… 지금 그 ……” 하고 저는 주위에 모여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사람의 눈이든지 뚱그렇게 된 농동자만 광휘를 발하고 같은 공포의 빛을 띠고 섰을 따름이다. 지금 이 위에 일 분만 한 소리의 절망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되면—그러면 누구나 다—슬피 울고 절망하여 부르짖고 흩어져 버리고 말 것 같이 보인다. 참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이 두려운 순간이었다. 아니시모프는 일종 이양(異樣)의 찬 기운이 전신에 삼투하여움을 느꼈다. 이 때에 저의 뒤에서 어떠한 젊은 대학생 한 사람이 여러 사람 틈에서 발돋움을 하고 일어선다. 그 대학생은 모자를 벗어 들고 사면으로 내어두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신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다.

“동포제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것은 …… 그것은 분명히 ○○놈들의 책략이요, 제군.”

무거운 것에 눌러있는 듯하던 군중의 기분은 갱생하였다. 두려운 그 순간은 지나갔다. 먼저 지나가든 그 기관차가 보도한 말이 진실하다 믿는 동시에 두렵고,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의 무저갱(無底坑)으로 떨어져서 악연자실(愕然自失)하여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던 공포를 이길 원기를 얻은 군중은 돌연히 실망과 공포가 격노와 결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아니시모프도 이제야 자기의 감각을 회복하게 되었다. …41)

앞선 전차역에서의 패배 소식을 듣고 군중은 침울에 빠지지만 그 순간 일어난 어느 한 대학생의 연설에 군중은 “공포”와 “악연자실”을 “격노”와 “결심”으로 바꿔 기분을 “갱생”시킨다. 이 대학생의 형상은 마치 김명식이 『로

41) 알티빠세푸, 신빈벌 역, 『혈혼』, 『신생활』 7, 1922.7.5.

서아의 산문학』에서 고리키를 언급하면서 말한 민중의 감정을 격발케 하는 ‘문학’의 역할에 비유될 수 있다. 또한 김명식이 강조한, 무수한 사람들의 의지를 총합하여 용기와 힘을 고취시키는 ‘지식계급’의 모습이기도 하다.

주인공 아니시모프는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굴빛이 바뀐다. “전보다 오히려 원기가 생생하고 신체가 별안간에 건강해진 것같이 보이며 “형언할 수 없는 만족한 빛이 얼굴에 넘치고 거룩한 환희가 혼신에 충일하여 보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과도한 노동, 압박, 굶욕, 학대, 분노, 화”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이었다.⁴²⁾ 그의 얼굴빛이 변한 것은 단연코 봉기를 준비하면서부터이다. 이 고양감 때문에 새로운 인간으로 스스로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시모프의 얼굴빛은 이전과 차이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봉기는 실패하고 군중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아니시모프는 전쟁의 과정에서 정말 살육이 벌어지는 것을 처음 목격하였고 조금 전까지 옆에 있던 동료가 온기가 식은 채로 누워있는 상황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와중에 그는 생포되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내일 사살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아니시모프는 봉기 이전의 생활로는 스스로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저의 생활은 둔한 회색으로 계속해왔다. 그것이 이번에 엄연히 발발(勃發)한 전국 일반민심의 반항과 긴장에 제회(際會)하여 저는 눈에 감촉되는 일체 만물에 전광(電光)을 비추은 것처럼 새롭게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자기 자신도 그 전광(電光)에 부딪쳐서 지상에 넘어져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

‘아니시모프’는 우뚝 섰다. 저의 심신은 극도로 긴장되었다. 다시 그 순간으로부터 점점 쇠퇴사멸(衰退死滅)하여 가는 듯하였다. 그때에 저는 느끼었다.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호말(毫末)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그런 생활을 반복해 흥 그것보다도 죽는 편이 얼마큼 다행하다.....이렇게

42) 알티빠세푸, 신빈벌 역, 『혈혼』, 『신생활』 6, 1922.6.1.

되어서 죽는대야 무슨 공포가 있으랴? 이 죽음은 필요하다. 자연으로 은도(隱道)하는 절대필요의 길이다.....

그런 생활 지금까지의 그런 생활! 얼마나 불쾌하였을까 교각(交覺)하였다.

이런 박각(博覺)이 없어지면 저는 심신이 평문(平問)하게 된다. 고생에 젖은 섹택(色澤) 좋지 못한 저의 얼굴은 다시 평정(平靜)한 가운데 결연(決然)한 표정을 띠이게 되었다. 43)

이주 짧은 봉기의 기간 동안 아니시모프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는 그 이전 궁핍한 생활, 가정의 문제 속에서 “둔한 회색”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봉기의 기간 동안 그의 삶에는 섹택이 입혀졌고 봉기에서 역장으로서 선봉에 서면서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생각되었다. 이제 아니시모프는 이전의 생활이 “불쾌”하였던 것이라는 자각을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면에서 정리되어 가자 그의 얼굴은 “고생에 젖은 섹택”에서 다시 “결연한 표정”을 찾게 된다.

「혈혼」은 봉기의 준비와 저항, 실패를 겪으면서 민중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아니시모프가 결국 살해당하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 죽음을 결심하는 장면은 자신이 원하는 바(새로운 생활)를 끝까지 지키고자 한 ‘선택’이다. 「혈혼」은 군중에 속한 아니시모프라는 개인이 자신의 생애 대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포와 불안과 같은 억압에 기반한 감정들을 통제하면서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형진에 따르면 1920년대 조선에 수용된 아나키즘은 여러 굴절과 변형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띠며 전개된다. “첫째, 새로운 사회 건설은 더이상 지식인과 지도자 등의 특정 주체가 아니라 민중(혹은 인민)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전보다 확산되었다. 둘째 1920년대 조선의 신흥적인 분위기는 민중의 출현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 직접행동, 폭력투쟁, 파괴적이고

43) 알티빠세푸, 신빈벌 역, 「혈혼」, 『신생활』 9, 1922.9.5.

야만적인 봉기가 강조되었다.”⁴⁴⁾ 『혈흔』을 통해 민중이 창조적인 삶을 욕망하기 시작하면서 저항의 주체가 되어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성에 의해 번역된 오스기 사카에의 『쇄공장』은 삶을 억압하는 요소를 민중 스스로가 목도하면서 보다 파괴적인 직접행동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쇄공장』에서 ‘나’는 어느 날 ‘나’뿐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이 차례가 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쇠사슬을 자신의 몸에 저절로 두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쇠사슬은 단순히 공장노동자가 당하는 억압과 부조리를 넘어 “정부, 경찰, 국가, 언론”에 의한 전방위적 억압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기능한다. ‘나’는 쇠사슬을 풀고자 하지만 이 고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얽혀지고 서로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한다. 절망 끝에 깨닫는 것은 “그러나 나는 오늘날 이미 생긴 조직과 제도에 대하여서는 거의 만능이라고 생각할 큰 세력을 표연히 무시워 하지 아니치 못한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제쳐놓고서 개인의 완성을 말하는 놈들은 꿈속에서 꿈꾸는 놈들이다.”라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와 해방은 나를 감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 쇠사슬은 나 혼자만 풀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결국 나와 동료들 감고 있는 쇠사슬을 모두 제거해야만 ‘나’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깨달음 끝에 그것을 파괴하는 직접 행동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⁴⁵⁾

『혈흔』에서 보이는 민중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의지와 『쇄공장』에서 보이는 직접 행동, 폭력에 대한 요청은 상호 분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스스로 쇠사슬을 매는 누구나, 아니시모프처럼 자신의 생활을 “불쾌”한 것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직접 행동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설혹 움직임이 실패하게 되더라도 자율성과 창조성을 가진 개인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운동의 모색은 가능하게 된다.

『신생활』에는 『혈흔』과 『쇄공장』 외에도 현좌건의 『인(人)』, 신일용의 『희

44) 이형진, 앞의 글, 183쪽.

45) RST(이성태) 역, 『쇄공장』, 『신생활』 9, 1922.9.5.

생』, 염상섭의 『묘지』와 같은 창작물, 고리끼의 『의중지인(意中之人)』, 레온 하르트 프랑크의 『부(父)』와 같은 번역 문학이 활발히 실린다. 『인』이나 『희생』과 같은 창작물에서는 공히 ‘부랑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투르게네프의 여러 소설에서 등장하는 부랑자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노동계급으로 전화될 잠재성을 갖고 있지만 보다 개인적 영역에서 의식적인 성장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고리끼의 『의중지인』은 학생에게 연애편지를 써줄 것을 부탁하는 부인이 등장하는데 학생에게는 편지를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없는 가상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부인이 처음에는 해피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함께 빠져들어 일을 도모한다. 작품 안에는 창조적 개인이 보여주는 자유로움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신생활』의 문예물은 민중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화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 글은 『신생활』에 실린 김명식의 글을 중심으로 『신생활』이 담지한 문예론을 의미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김명식은 1917년의 10월 혁명이 있는 직후 러시아에서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였다. 가장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진인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성공시켜 인류역사의 최첨단의 진보를 성공시킨 이유를 알길 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등주의와 공산경제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러시아의 원시부락체인 ‘밀’, ‘도블’과 같은 자치체에 대한 탐색을 벌였지만, 러시아 혁명은 김명식에게 있어 정치와 사회의 제도, 종교의 양식, 경제의 조직에 있어 근원적 뿌리가 뽑혀나가고 새로운 기반이 형성되는 사건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고대 부락체에 대한 탐색으로는 답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여러 탐색 끝에 김명식이 착목한 것은 19세기 중반의 러시아 문학이었다. 1800년대 중후반부터 작품활동을 한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고리끼 등의 작가들이 주로

초점화되는데 이들 작품들은 민중 현실에 대한 반영과 현실에 대한 민중의 반역적 의지를 균형있게 그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신생활』에 게재된 「로시아의 산문학」의 모태가 되는 텍스트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였다.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서는 투르게네프, 고리키 등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반형성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명식은 벨린스키, 체르니셰프스키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담론을 저변으로 하여 민중 현실과 예술, 노동과 예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사유한 비평가들의 활동이 작가들의 창작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김명식은 러시아문학을 『신생활』에 소개하면서 『신생활』의 새로운 문예론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생활』은 주지하듯이 부르주아 문학론 및 문화론을 “소수의 문화” “계급문화”로 비판하며 “전체의 문화” “대중의 문화”를 주창하였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 예술과 현실에 대해 적대적이고 화해불가능한 대립적 관계를 강화시킨 부르주아 예술주의를 비판하며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개입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문학 예술을 요청한 것이었다. 김명식은 이러한 문예론을 러시아 문학 읽어가면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생철학과 아나키즘 사상을 접목시켜 로맹 롤랑의 『민중극』을 재해석한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 예술론』을 경유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스기 사카에는 『민중 예술론』뿐만 아니라 「민중예술의 기교」,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예술」과 같은 일련의 민중예술론과 관련된 글들에서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투르게네프, 고리키 등에 관한 비평을 시도한다. 『신생활』은 혁명이 성공한 러시아에서 예술이 어떻게 사회화, 대중화되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혁명이전의 러시아문학의 상황에 보다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러시아 문학과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 여기에 깔려있는 아나키즘과 생철학을 수용해 나가면서 『신생활』 필진들은 민중이 역사의 새로운 주체이며 결국엔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문학을 통해 민중을 투쟁의 주체로 변모시키기를 원했다. 이는 민중에 대한 계몽적 의도를 갖고 있다기 보다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감정에 기반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에 문학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생활을 인식하고 새로운 생활을 원하는 개인으로서 민중이 새롭게 등장할 필요가 있었다. 생에 대한 의지가 기반하지 않는 이상 집단행동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생활』에 번역된 아르치바세프의 『혈흔』과 오스기 사카에의 『쇄공장』은 민중감정의 다양한 결들과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들, 생명일치에 대한 욕망이 반역적 의지와 결부되는 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이렇듯 『신생활』은 새로운 예술이 혹은 새로운 예술만이 새로운 세계를 견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신생활』 1~15, 신생활사.

김명식, <노국혁명운동의 유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동아일보』, 1921.6.9.

최승구, 『감정적 생활의 요구』, 『학지광』 3, 1914.12.

김명식, 『안거연래(雁去鷺來)』, 『학지광』 13, 1917.7.19.

로맨 롤랑, 김억 역, 『민중예술론』, 『개벽』 28, 1922.10.1.

大杉栄 『民衆藝術の技巧』, 正義を求める心: 大杉栄論集, アルス, 1921.

大杉栄 『新しき世界の為の新しき芸術』, 正義を求める心: 大杉栄論集, アルス, 1921.

니콜라이 체르니셴스키, 김정아 역, 『무엇을 할 것인가』, 지만지, 2011.

윌리엄 모리스, 서의윤 역, 『예술과 노동』, 『노동과 미학』, 좁쌀한알, 2018.

2. 논저

권보드래, 『피제에프와 조선의 동지들: 소비에트 모델과 조선의 사회주의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80, 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김경연, 『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 - 『신생활』의 사회주의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의 기획』, 『한국문학논총』 71, 한국문학회, 2015.

김동윤, 『송산 김명식의 생애와 문학』, 『한국문학논총』 63, 한국문학회, 2013.

김민아, 『베르디에프와 러시아 혁명』, 『인문논총』 7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김종현, 『『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과 문예의 특성』, 『인문논총』 32, 경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김학준, 『19세기 제정러시아 사상가들의 혁명이론에 대한 고찰』, 『국방연구』 19,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1976.

김현주,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 - 사회주의는 사회비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김현주 · 카케모토 츠요시(影本剛), 『초창기 사회주의 지식인의 러시아혁명 인식-김명식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921)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0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박양신, 『다이쇼 시기 일본 · 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 『한림일본학』 22, 일본학연구소, 2013.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친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학회, 2000.

_____,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 『사림』 49, 수선사학회, 2014.

박현수, 『『신생활』 필화사건 재고』,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이현주,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1919-1923』, 일조각, 2003.

이형진,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과 아니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에 관한 논고』, 『석당논총』 7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정윤성, 『『신생활』의 역사적 의미 재론-잡지사의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최병구, 『사회주의 조직운동과 문학, 소설과 비평의 사이: 1927년 카프 1차 방향전환기 재독(再讀)』, 『국제

- 어문』 60, 국제어문학회, 2014.
-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 :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지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2007.
- 최은혜, 『민족과 혁명 :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77, 민족문화사연구소, 2021.
- 최진석, 『예술-노동의 역사 · 이론의 궤적』, 『문화과학』 84, 문화과학사, 2015.
- _____, 『근대 러시아 지식장과 역사철학 논쟁 : 서구주의 비평가의 내면적 초상으로부터』, 『탈경계인문학』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6.
- 한기형, 『문화정치가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허호준, 『혁명가 김명식의 생애와 사상』, 『4.3과 역사』 5, 제주4.3연구소, 2005.
- _____,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 39, 2011.
- 안성찬, 『송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틱』, 한길사, 2005.
- 안드레이 발리쯔끼(Andrzej Walicki), 장실 역, 『계몽사조에서 마르크스주의까지』, 문예림, 1997.

Kim Myung-sik's Literary Theory-focusing on writings in “*New Life*”

Jeon Seong Ky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theory, focusing on Kim Myung-sik's writings published in “*New Life*”. Kim Myung-sik is a representative figure who set the direction of the new culture movement as a ‘literary movement’ within “*New Life*” and led it. “*Literature conceived by Russia*” served as a very important text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within the *New Life*, and defining the ‘People’s Literature’ advocated by the *New Life*. In “*Literature conceived by Russia*”, Kim Myung-sik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role of realism literature in Russia in the mid to late 1800s as the reason for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in Russia, which is culturally and economically the most backward. He saw that the emergence of literature, such as Turgenev and Gorky, that mediates ideals and realities in a balanced way, drove the revolution in reality. “*Literature conceived by Russia*” has its origins in “*What kind of person Nikolai Lenin is*”, which has been serialized in the *Dong-A Ilbo* since June 1921.

Kim Myung-sik's interest in Russian literature is not a result of direct access to Russian literature, but rather it can be seen that it was born through Osugi Sakae(大杉 栄)'s theory of popular art. In the late 1910s and early 1920s, Osugi Sakae accepted Romain Roland's “*People's Drama*”, biophilosophy, anarchism,

* Chonnam University

and Russian realism literature, and established his own theory of popular ar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with Osugi Sakae's position in recognizing the public as the subject of history and recognizing literature as an art institution where people(Min-Jung) can freely express their emotions of anger or hatred and an institution of struggle.

Key words : Kim Myung-sik, "*New Life*", People's Literature, realism literature in Russia, Osugi Sakae(大杉 栄), theory of popular art